

## 기업가의 창업동기와 고용창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이윤숙(주저자)

동양미래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조교수  
(yslee9728@gmail.com)

이상준(공저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sjoonlee@korea.ac.kr)

신호정(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ojung\_shin@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고용창출에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창업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창업의 형태를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구분하여, 창업형태에 따르는 기업생존율과 고용성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수, 기업생존율, 총고용 변화량, 평균고용 변화량, GDP, 실업률, 구별 상주인구, 구별 용도지역 등을 포함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창업이 고용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회형 창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높은 평균고용 성장률을 보이며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였다. 반면에 생계형 창업은 높은 폐업률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총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존에 성공하더라도 유의한 수준의 추가적인 고용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창업생태계를 기회형 창업 비율이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사료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주거용지보다 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은 구에서 총고용과 평균고용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기반을 보전하고 경공업 중심의 도시형 제조업 산업단지를 육성해야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주제어: 창업, 생계형 창업, 기회형 창업, 기업생존율, 고용성장

### 1. 서론

창업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테크크런치(TechCrunch Disrupt)<sup>1)</sup>와 슬러시(Slush)<sup>2)</sup> 같은 스타트업 콘퍼런스는 이미 경제현상을 넘어선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 열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 정부도 각종 창업보육 활동 및 창업 경진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관련 예산 또한 2013년 13,968억 원에서 2015년 15,393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결과 2008년에 5만 개 수준이었던 연간 창업기업 수가 2014년에는 8만 5천여 개로 증가하여,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김보경, 2015).

창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하며(Shane, 2009),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조태현, 2004) 공

최초투고일: 2018. 6. 2      게재확정일: 2018. 7. 5

1) Disrupt-TechCrunch - <https://techcrunch.com>

2) Slush - <http://www.slush.org>

정적인 주장이 있는 반면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Davis, Haltiwanger, Jarmin, Krizan, Miranda, Nucci and Sandusky, 2007; Parker, 2009; Fairlie and Miranda, 2017).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한 반면에,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약 60%를 차지한다(Acs and Armington, 2004).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설립된 지 이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은 전체 고용증가의 1.7%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신규고용(약 74.5%)은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에 의하여 창출되고 있다(Delmar and Davidsson, 2000). 우리나라에서도 창업기업의 75.2%가 평균 5년 미만에 폐업하는 실정이고,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김광석, 2015), 창업이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신생기업들은 근로자의 보수가 낮고 계약직의 비율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기존 기업들보다 떨어진다고(Wagner, 1997). 신생기업은 조직구조가 취약하고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여 폐업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소멸이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쇄하여 총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한다(Knaup, 2005). 창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상반된 발견과 주장은 창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거시경제 및 기업환경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창업과 고용창출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창업동기 이론(entrepreneurial motivation theory)”을 채택하여, 독립변수인 창

업을 생계형(subsistence entrepreneurship)과 기회형(opportunity entrepreneurship)으로 구분하였다. 생계형 창업은 한 국가의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취업 가능성이 낮을 때 생계유지를 위하여 선택하는 비자발적 창업으로서, 저개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기회형 창업은 각종 경로를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창업형태로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창업기업의 총고용 변화량, 생존기업의 평균 고용 변화량, 창업기업의 생존율로 구분하여 창업이 고용성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업의 고용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의 생존여부 및 기업 당 고용 증가분과 같은 미시(微視)적 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야한다. 해당 변수들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측정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사업체들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25개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1998년부터 2013년 시계열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장점을 살려, 25개의 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구별 인구특성과 용도지역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따른 창업기업 수, 창업형태 분포, 기업생존율의 편차를 통계적 분석에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견고(robust)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서울시)에서 형성된 생계형 및 기회형 창업이 창업 관련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고용창출이라는 최종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창업이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amplification)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창업의 고용효과는 기업가의 창업동기 즉 창업형태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가 고용(self-employment)의 성격이 짙은 생계형 창업은 높은 폐업률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거나 실업률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형 기업이 생존에 성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고용창출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기회형 창업이 생존할 경우에는 높은 평균고용 성장률을 보여서, 기회형 창업의 생존율을 제고하는 경영환경 및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사료되었다. 기업 생존율 측면에서도 생계형과 기회형 창업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울시에서는 기회형 창업과 생존율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생계형 창업은 생존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주거용지보다 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은 구에서 총고용과 평균고용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형 제조기반을 보전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주로 제조기반의 기회형 창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회형 창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각각의 지역으로 분산시켜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생존율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창업과 기업생존율 및 고용성장, 창업형

태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의 틀이 되는 탐색적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III장에서는 데이터의 기술통계 및 연구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IV장에서 통계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문헌연구

### 2.1 창업과 기업생존율 및 고용성장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창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및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다. 창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며, 경쟁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Wong, Ho and Autio, 2005). 창업은 이렇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존재의 위협을 수반하므로, 어떠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며, 반대로 폐업(exit)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왔다(Audretsch and Mahmood, 1995; Brüderl, Preisdörfer and Ziegler, 1992; Wennberg and DeTienne, 2014).

기업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기업가(individual)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Box, 2008). 환경적 요인은 기술변화, 경기순환 등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일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구조적 요인은 연혁, 규모와 같은 기업의 내재적 특성과,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상황을 내포하는 산업의 고유한 특성(industry affiliation)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가적 요인은 개별 기업가가 보유한 능력과 역량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을 포괄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창업한 기업들은 폐업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업력이 낮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한다(Box, 2008). 동종산업 내에서 경쟁강도가 높으면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지만, 이와는 별개로 기업가의 역량이 뛰어난수록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cs, Armington, and Zhang(2007)은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기업, 산업, 입지와 관련된 요인들이 신생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 관련 요인으로는 기업의 크기, 진입 시기, 조직자산, 관계자산, 마케팅 혹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측정된 기업의 특화된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관련 요인으로는 시장 및 산업의 수명주기를 들 수 있고, 입지관련 요인으로는 공간 집중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과 제도, 풍부한 노동시장 등이 있다. Acs and Armington(2006)은 신생기업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기업생존율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회사가 입지한 지역의 인적자원이 기업생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기업가의 성향과 개별역량이 기업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Pena(2002)는 창업가의 교육수준, 창업 전 회사운영경력, 산업에 관한 지식과 네트워크, 성공에 대한 열망과 기업가 정신이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Wicker and King(1989)은 창업가의 개인적 성향과 기업생존율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은 창업이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하에 창업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Astebro and Tag, 2017).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새로운 산업의 신생기업들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Anyadike-Danes,

Bjuggren, Gottschalk, Hölzl, Johansson, Maliranta and Myrann, 2015; Fairlie and Miranda, 2017;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 2013). 창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받으면서, 창업과 고용성장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stebro and Tag(2017)는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창업가를 포함한 창업기업의 총고용(gross jobs), 2) 창업가들을 제외한 창업기업의 순고용(net jobs), 3) 실직상태에서 고용으로 연결된 고용창출(new jobs). 분석결과, 신생기업들이 창출하는 총고용과 순고용의 대부분은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신생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실직상태의 구직자가 고용되는 신규 고용창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발견은 창업과 고용 및 실업률의 관계는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기업들의 고용활동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생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업력(경험)도 적고, 보유한 자원도 부족한 상대적 불리함에 처해있기 때문에 초기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미국 기업의 창업과 실패율의 상관관계는 약 0.7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Shane, 2009). 또한 특정산업으로 기업들이 다수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 창업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시킨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산업별, 지역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창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보다 다각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 2.2 창업형태에 따른 기업생존율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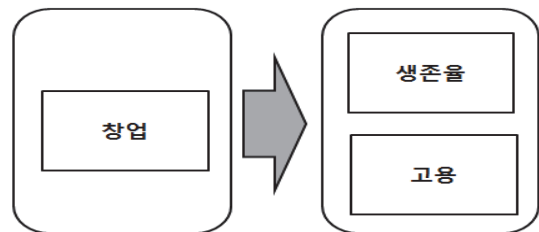
2001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sup>3)</sup>에서 처음으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였다. 선진국에서 창업이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도 창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창업의 형태와 특성이 상이한 점을 주목하여, 저개발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창업을 생계형 창업으로 선진국에서 주로 관찰되는 자발적 창업을 기회형 창업으로 구분하였다.

생계형, 기회형의 구분 없이 창업은 전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생계형 창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기회형 창업은 국가경제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계형 창업에서는 혁신적인 사업모형의 수립과 신시장 개척이 어렵고, 기업성장에 대한 창업가의 의지가 낮아서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Acs, 2006). 생계형 창업가들은 생계를 위한 대안이 나타났을 때, 기업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낮으며, 교육수준이나 기술력도 낮은 편이다.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해 창업을 선택한 기회형 창업가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기회형 창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위험요인들과 난관이 존재하지만 기술이 완성되고 수요창출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률

과 함께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벤처, 스타트업(startup) 혹은 기술창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서정환·신용백, 2002; Acs, 2006; Bridge and O'Neill, 2012; Schoar, 2010). 이러한 맥락에서 Acs(2006)는 창업이 특정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려 한다면 창업의 수와 경제적 효과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2.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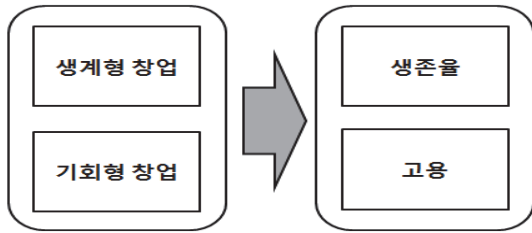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창업형태가 기업생존율 및 고용성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체계 안에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를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창업형태(생계형 vs. 기회형)에 따라서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위계적 분석법(hierarchical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즉,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기본 연구모형과 비교연구모형의 통계적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창업과 고용의 다차원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기본 연구모형

3) Reynolds, P. D., S. M. Camp, W. D. Bygrave, E. Autio, M. Hay(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01 Summary Report*. London Business School and Babson College.





〈그림 2〉 비교 연구모형

### III.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업체 데이터와 통계청에서 수집한 서울시의 구별 인구통계 및 경제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업체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1994년부터 전국적인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수조사로서 사업체들의 설립연도, 매출액, 지역, 조직형태, 본사 및 영업점, 고용인원,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각 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신력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구별 창업기업 수(number of establishments)의 독립변수와,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 총고용의 변화량 및 평균고용 변화량 등의 종속변수들을 산출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2년 전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연변수와 향후 3년 후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들을 가공하였으므로, 기업의 창업시점을 기준으로 데

이터의 시간범위(time span)는 2000년부터 2010년으로 한정된다.

#### 3.2 변수와 조작적 정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명과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변화량, 서울시 실업률, 인구, 주간인구지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통제변수로서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GDP는 한 나라 영토 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경제성장률 지표이다. 창업과 경제상황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례로 2006~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의 창업률은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Shane, 2009).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표본 수하에서 통계적 분석의 강인성(robustness, 強韌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GDP의 연간 순증가량( $\Delta$ GDP)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총고용과 평균고용의 자연스러운 변화량(natural progression)은 시간효과(time effect)를 별도로 채택하여 통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실업은 창업을 설명하는 예측변수(predictor)로서 종종 채택되고 있으며, 실업과 창업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실업상태의 개인이 창업할 확률이 고용상태의 개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Evans and Leighton, 1990)가 있는 반면에, 미국의 서비스와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업률의 증가와 창업의 증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Carree, 2002).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창업이 증가하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실업률과 창업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

지 않아, 실업과 창업의 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결론지은 연구(Reynolds, Storey and Westhead, 1994)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mixed results)이 나타난 원인은 창업특성이나 창업형태를 통제하지 않은 가운데 실업과 창업의 단순 상관관계만을 분석하여 발생한 결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창업에 미치는 효과가 지연(lagged effect)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2년 전(t-2)의 서울시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는 특정지역 수요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구가 많을수록 해당지역의 창업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통제된 인구수는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구별 상주인구를 의미한다. 또한 인구수와는 별개로 주간인구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간인구는 지역의 상주인구에 통근과 통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를 합산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제외하여 산출된다. 한 지역의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로, 해당지역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중구(325), 종로구(233), 강남구(174), 영등포구(135), 용산구(131) 순으로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도봉구(78), 강북구(80), 중랑구(80), 은평구(81) 등은 100 미만으로 그 수치가 낮았다. 중구, 종로구의 경우 상주인구의 수가 낮고 주간인구

의 비율은 높아 주간인구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경우는 상주인구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주간인구지수가 중구와 종로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주간인구지수가 높을수록 업무지구로 특성화되어 사무실이 밀집해 있음을 의미하나, 구별 인구수와의 비교를 통하여 거주지가 합계 발달한 업무지구인지 주거지 비율이 낮은 순수한 사무실 밀집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sup>4)</sup> 법률에 의거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연관이 적다고 판단되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비율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창업을 위한 입지선정은 창업기업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다. 지역별로 창업률이 천차만별인 원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 시장조건, 자본의 이용가능성, 수요크기 등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최창호·안동환, 2010). 용도지역 구분은 지역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자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서 창업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구의 용도지역 정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서울시 구별 창업의 수를 일반적인 창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독립변수로 채택하였고, 이를 기회형과 생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

계형 창업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창업의 수는 각각의 구별로 회사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창업의 빈도(frequency)를 측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유형을 생계형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하였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상법이 규정하는 기업유형이지만, 창업의 용이성과 자본규모 측면에서 창업의도가 반영된 창업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개인기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에 의해 설립된 가장 단순한 기업유형으로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개인기업 대다수는 소상공인으로서 2012~2013년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인 32.5%, 5,000만원 미만 창업이 74.9%에 달하여, 창업 당시 사업규모가 영세한 생계형 창업이라고 볼 수 있다(주현·김숙경·김종호, 2013). 반면, 법인기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인의 소유자인 다수의 주주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현대적인 형태의 기업이다. 법인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며, 설립자가 미래의 사업전망이 유망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기업형태이다.

종속변수로는 총고용 변화량( $\Delta$ 총고용) 및 평균고용 변화량( $\Delta$ 평균고용)과 창업 후 생존율을 사용하였다. 우선 각 구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들 중에서 3년 후에도 존속하는 기업들을 파악하여 기업생존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특정 창업년도로부터 3년 후까지 생존한 기업들의 총 종업원 수와 해당년도에 창업한 모든 기업들의 총 종업원 수의 차이로 총고용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년 후에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종업원 수에서 창업 당시 기업들의 평균 종업원 수를 감하여 기업 당 평균고용의 변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구분   | 변수명            | 변수정의  |
|------|----------------|---|
| 통계변수 | $\Delta$ GDP   | $GDP_{(t)} - GDP_{(t-1)}$   |
|      | 실업률(%)         | 서울시 실업률 <sub>(t-2)</sub>  |
|      | 구별인구           | 구별 주민등록 인구 <sub>(t)</sub>   |
|      | 주간인구지수         | 구별 (상주인구 <sub>(t)</sub> + 유입 <sub>(t)</sub> - 유출 <sub>(t)</sub> )/상주인구 <sub>(t)</sub> × 100 |
|      | 주거지역(%)        | 구별 면적 대비 주거지역 면적의 비율 <sub>(t)</sub>   |
|      | 상업지역(%)        | 구별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의 비율 <sub>(t)</sub>   |
|      | 공업지역(%)        | 구별 면적 대비 산업지역 면적의 비율 <sub>(t)</sub>   |
| 독립변수 | 창업             | 구별 창업기업 수 <sub>(t)</sub>  |
|      | 생계형 창업         | 구별 개인기업 창업 수 <sub>(t)</sub>   |
|      | 기회형 창업         | 구별 법인기업 창업 수 <sub>(t)</sub>   |
| 종속변수 | 기업생존율(%)       | 구별 (생존기업 수 <sub>(t+3)</sub> /창업기업 수 <sub>(t)</sub> )  |
|      | $\Delta$ 총고용   | 구별 (생존기업 총종업원 수 <sub>(t+3)</sub> - 창업기업 총종업원 수 <sub>(t)</sub> )                             |
|      | $\Delta$ 평균고용* | 구별 (생존기업 평균종업원 수 <sub>(t+3)</sub> - 창업 시 평균종업원 수 <sub>(t)</sub> )                           |

\* 생존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산출



화량을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총고용 변화량은 각각의 지역경제(구)에서 창업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의 3년간 변화량을 측정하는 절대적 총량지표인 반면에, 평균고용 변화량은 생존기업이 이룬 3년간의 사업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고용을 측정하는 개별기업 중심의 지표이다. 이들 변수들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는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 3.3 기술통계

〈표 2〉와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지역의 기술통계이다.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인구는 약 41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중구의 약 13만 명이고, 최대값은 송파구의 약 69만 명으

로서 구별 인구분포의 편차가 비교적 크다. 주간인구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15.77이며, 가장 수치가 높은 곳은 중구로 최대값 354를 기록했고, 최소값은 도봉구로 그 수치는 76으로 조사되었다. 구별 주간인구지수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와 주간인구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에는 주간인구지수와 거주인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각 구별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거지역(0.59)과 상업지역(0.48)의 비율이 높았고 공업지역은 0.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부분의 구는 거주지와 상업지로만 이루어지는데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는

〈표 2〉 변수의 기술통계<sup>5)</sup>

| 변수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ΔGDP*  | 275 | 63,012.30  | 20,245.22 | 43,764.00  | 113,600.00 |
| 실업률    | 275 | 3.60       | 0.28      | 3.20       | 4.10       |
| 구별인구   | 275 | 414,983.00 | 7,398.74  | 134,420.00 | 693,144.00 |
| 주간인구지수 | 275 | 115.77     | 55.34     | 76.00      | 354.00     |
| 주거지역   | 275 | 0.59       | 0.18      | 0.22       | 0.94       |
| 상업지역   | 275 | 0.48       | 0.34      | 0.03       | 1.27       |
| 공업지역   | 275 | 0.19       | 0.42      | 0.01       | 1.74       |
| 창업     | 275 | 3,982.86   | 1,579.58  | 1,844.00   | 10,961.00  |
| 생계형 창업 | 275 | 3,544.64   | 1,274.45  | 1,514.00   | 9,911.00   |
| 기회형 창업 | 275 | 438.22     | 464.91    | 36.00      | 3,290.00   |
| 기업생존율  | 275 | 0.58       | 0.09      | 0.37       | 0.96       |
| Δ총고용   | 275 | -3,953.33  | 3,315.29  | -28,748.00 | 2,643.00   |
| Δ평균고용  | 275 | 0.68       | 0.59      | -0.81      | 3.41       |

\* 단위: 십억 원

5) 전체 패널 데이터 관측치의 기술통계

〈표 3〉 지역별 기술통계<sup>6)</sup>

| 지역구분 | 창업 수  | 기회형 창업 | 생계형 창업 | 기업생존율 | △총고용    | △평균고용 |
|------|-------|--------|--------|-------|---------|-------|
| 강남구  | 7,871 | 2,188  | 5,683  | 0.60  | -12,102 | 1.52  |
| 강동구  | 4,132 | 277    | 3,855  | 0.52  | -4,907  | 0.48  |
| 강북구  | 2,807 | 83     | 2,724  | 0.55  | -2,861  | 0.36  |
| 강서구  | 4,777 | 410    | 4,367  | 0.50  | -5,563  | 0.81  |
| 관악구  | 4,138 | 203    | 3,935  | 0.52  | -5,189  | 0.38  |
| 광진구  | 3,925 | 339    | 3,586  | 0.51  | -4,692  | 0.53  |
| 구로구  | 3,670 | 452    | 3,218  | 0.65  | -1,612  | 1.05  |
| 금천구  | 2,819 | 375    | 2,444  | 0.64  | -646    | 1.73  |
| 노원구  | 3,488 | 146    | 3,342  | 0.56  | -4,140  | 0.24  |
| 도봉구  | 2,525 | 88     | 2,437  | 0.55  | -2,734  | 0.23  |
| 동대문구 | 3,779 | 234    | 3,545  | 0.67  | -3,088  | 0.31  |
| 동작구  | 2,646 | 175    | 2,471  | 0.55  | -2,952  | 0.63  |
| 마포구  | 3,863 | 649    | 3,214  | 0.59  | -3,956  | 0.99  |
| 서대문구 | 2,761 | 143    | 2,618  | 0.56  | -3,066  | 0.47  |
| 서초구  | 4,527 | 1,134  | 3,393  | 0.68  | -4,121  | 1.17  |
| 성동구  | 2,782 | 263    | 2,519  | 0.65  | -2,114  | 0.69  |
| 성북구  | 3,457 | 122    | 3,335  | 0.57  | -3,130  | 0.39  |
| 송파구  | 5,624 | 802    | 4,822  | 0.58  | -5,907  | 0.80  |
| 양천구  | 3,855 | 285    | 3,570  | 0.51  | -4,714  | 0.55  |
| 영등포구 | 4,733 | 743    | 3,990  | 0.62  | -3,153  | 1.38  |
| 용산구  | 2,651 | 499    | 2,152  | 0.6   | -2,573  | 0.84  |
| 은평구  | 3,312 | 113    | 3,199  | 0.52  | -3,552  | 0.32  |
| 종로구  | 4,134 | 473    | 3,661  | 0.69  | -3,511  | 0.46  |
| 중구   | 7,376 | 632    | 6,744  | 0.75  | -4,229  | 0.50  |
| 중랑구  | 3,917 | 126    | 3,791  | 0.53  | -4,321  | 0.33  |

공업지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이들의 평균값이 0.18로 나타났다. 구별 창업 수는 연평균 4,055이다.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강남구이고 가장 저조한 지역은 도봉구로 나타났다. 창업을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

계형 창업이 연평균 3,544로 기회형 창업의 438보다 약 8배 이상 높았다. 생계형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중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영등포구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회형 창업 역시 생계형 창업과 유사하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6) 각 구의 연도별 수치들의 평균값

순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에서는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3년 후 평균 생존율은 약 58%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순으로 기업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후 창업기업들의 총고용 변화량은 대부분 음수(陰數)를 기록하였는데, 총고용 증가는 기업생존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순으로 총고용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생존율이 평균 이하로 낮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총고용의 감소폭이 매우 컸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에는 기업생존율이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수 자체가 다른 구보다 절대적으로 많아서, 총고용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평균고용성장은 창업한 기업들의 기업 당 평균종업원 수에서 3년 후 생존한 기업들의 기업 당 평균종업원 수를 비교하여 그 수치를 구하였는데 평균 0.68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구로구에서 기업 당 평균 1인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는 평균 0.20명 정도의 증가가 이루어져 25개 구 가운데 최하위 권에 속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 방법의 하나인 PCSE(panel correlated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하였다. PCSE 방법은 일반적으로 패널 분석에 사용되는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모델과는 달리 그룹별 이분산성(group wise 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하거나, 데이터의 횡단

면 차원(25개 구)이 시계열 차원(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보다 데이터 수가 큰 경우에도 안정적인 추정 값을 제공한다(Beck and Katz, 1995; 박수훈·이윤숙·신호정, 2011).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하여 분석하여 추정된 계수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 IV. 분석결과

### 4.1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표를 살펴보면  $\Delta$ GDP가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고( $\rho = -0.14, p < 0.05$ ) 실업률의 상승과 창업의 증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ho = 0.12, p < 0.05$ ). 이는 서울의 경우 경제상황이 어렵고 실업률이 증가할 때 더 많은 창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실업률( $\rho = 0.14, p < 0.05$ )과 주간인구지수( $\rho = 0.47, p < 0.01$ )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고, 기업생존율( $\rho = -0.15, p < 0.01$ )과는 음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기회형 창업을 살펴보면 실업률( $\rho = 0.02, p > 0.10$ )과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간인구지수( $\rho = 0.38, p < 0.01$ )와 기업생존율( $\rho = 0.12, p < 0.05$ )과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형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표 5〉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이 창업 이후 3년 동안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의 평균고용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통제변수인 시간(t),  $\Delta$ GDP, 실업률, 구별인구, 용도지역과 종

〈표 4〉 상관관계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ΔGDP   | 1.00   |         |         |         |         |         |        |         |         |         |        |        |      |
| (2) 실업률    | -0.14* | 1.00    |         |         |         |         |        |         |         |         |        |        |      |
| (3) 구별인구   | 0.01   | -0.01   | 1.00    |         |         |         |        |         |         |         |        |        |      |
| (4) 주간인구지수 | 0.01   | -0.01   | -0.44** | 1.00    |         |         |        |         |         |         |        |        |      |
| (5) 주거지역   | 0.01   | 0.01    | -0.19** | -0.01   | 1.00    |         |        |         |         |         |        |        |      |
| (6) 상업지역   | 0.01   | 0.01    | 0.06    | -0.16** | 0.28**  | 1.00    |        |         |         |         |        |        |      |
| (7) 공업지역   | 0.01   | 0.01    | 0.04    | -0.11†  | -0.22** | -0.18** | 1.00   |         |         |         |        |        |      |
| (8) 창업     | 0.03   | 0.12*   | 0.23**  | 0.49**  | -0.24** | -0.01   | -0.01  | 1.00    |         |         |        |        |      |
| (9) 생계형창업  | 0.02   | 0.14*   | 0.22**  | 0.47**  | -0.18** | 0.02    | -0.01  | 0.96**  | 1.00    |         |        |        |      |
| (10) 기회형창업 | 0.03   | 0.02    | 0.17**  | 0.38**  | -0.29** | -0.07   | -0.01  | 0.71**  | 0.51**  | 1.00    |        |        |      |
| (11) 기업생존율 | -0.12* | -0.01   | -0.38** | 0.52**  | -0.13*  | -0.16** | -0.02  | -0.09   | -0.15** | 0.12*   | 1.00   |        |      |
| (12) Δ총고용  | -0.01  | -0.16** | -0.33** | -0.09   | 0.09    | -0.06   | 0.08   | -0.73** | -0.67** | -0.59** | 0.41** | 1.00   |      |
| (13) Δ평균고용 | 0.13*  | -0.14*  | -0.01   | 0.08    | -0.23** | -0.08   | 0.27** | 0.11*   | -0.01   | 0.44**  | 0.11*  | 0.20** | 1.00 |

†  $p < 0.10$ ; \*  $p < 0.05$ ; \*\*  $p < 0.01$

속변수인 생존기업의 평균고용 변화량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모형2는 독립변수로 창업의 수를 모형1에 추가하였다. 모형3은 창업을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분리하여 이들과 평균고용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모든 모형에서 시간효과는 생존기업의 평균고용성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91, 0.100, 0.093, p < 0.05$ ). 이러한 결과는 생존에 성공한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모형에서 공업지역의 비율과 평균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beta = 0.281, 0.270, 0.271, p < 0.01$ ). 즉, 제조업 기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창업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창업의 양적 증가와 평균고용의 변화량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eta = 0.151, p > 0.10$ ), 창업 형태를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생계형 창업은 평균고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 $\beta = -0.150, p < 0.10$ )을 미친 반면에, 기회형 창업은 평균고용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85, p < 0.01$ ). 결과적으로 창업이 평균고용 변화량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창업의 대다수인 생계형 창업의 부정적인 효과가 기회형 창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표 6〉은 창업과 창업한 기업들의 총고용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5〉와 마찬가지로 모형1은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창업기업 총고용의 관계를 나타내며,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로 창업의 수를 추가하였고, 모형3에서는 창업을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분리하여 이들과 총고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표 5〉 창업형태와 생존기업의 평균고용 변화량

| 독립변수                 | Δ평균고용   |                |                     |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시간(t)                | 0.091*  | 0.100*         | 0.093**             |
| ΔGDP                 | -0.032  | -0.023         | -0.020              |
| 실업률 <sub>(t-2)</sub> | 0.009   | -0.022         | 0.015               |
| 구별인구                 | -0.085  | -0.177         | <b>-0.253*</b>      |
| 주간인구지수               | 0.037   | -0.089         | -0.192              |
| 용도지역                 |         |                |                     |
| 주거지역                 | -0.164  | -0.149         | -0.068              |
| 상업지역                 | 0.015   | -0.001         | 0.022               |
| 공업지역                 | 0.281** | <b>0.270**</b> | <b>0.271**</b>      |
| 창업                   |         | 0.151          |                     |
| 생계형 창업               |         |                | -0.150 <sup>†</sup> |
| 기회형 창업               |         |                | 0.585**             |
| n                    | 225.    | 225.           | 225.                |
| R <sup>2</sup>       | 0.100   | 0.110          | 0.300               |
| p-value              | 0.000   | 0.000          | 0.000               |

<sup>†</sup>  $p < 0.10$ ; \*  $p < 0.05$ ; \*\*  $p < 0.01$

같다. 첫째, 모든 모형에서 실업률이 높을수록 총고용이 낮아지는 경향( $\beta = -0.302, p < 0.01, \beta = -0.108, -0.122, p < 0.05$ )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면밀하고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한적이어서, 실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자가 고용을 시도한다. 이는 〈표 4〉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창업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rho = 0.12, p < 0.05$ )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실업률이 높으면 창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가 고용이 증가하지만, 창업기업들이 다수 생존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총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구별인구와 주간인구지수가 총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과 모형 2~3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모형2와 3

에 창업관련 변수들이 포함되면서, 이들이 모형1에서 나타났던 구별인구( $\beta = -0.562, p < 0.01$ )와 주간인구지수( $\beta = -0.422, p < 0.01$ )가 창업기업들의 총고용 변화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즉, 구별인구와 창업의 상관관계( $\rho = 0.23, p < 0.01$ )가 구별인구가 총고용에 미치는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잠식하게 된 것이다. 주간인구지수와 총고용의 관계가 모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와 주간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창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창업이 실패를 겪게 되면 고용의 총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생존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업의



〈표 6〉 창업형태와 창업기업의 총고용 변화량

| 독립변수                 | Δ총고용     |          |          |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시간(t)                | 0.054    | 0.005    | 0.009    |
| ΔGDP                 | 0.081*   | 0.026    | 0.023    |
| 실업률 <sub>(t-2)</sub> | -0.302** | -0.108*  | -0.122*  |
| 구별인구                 | -0.562** | 0.024    | 0.042    |
| 주간인구지수               | -0.422** | 0.367**  | 0.401**  |
| 구별 용도지역              |          |          |          |
| 주거지역                 | -0.010   | -0.108*  | -0.142** |
| 상업지역                 | -0.072   | 0.030    | 0.023    |
| 공업지역                 | 0.054    | 0.121**  | 0.114**  |
| 창업                   |          | -0.919** |          |
| 생계형 창업               |          |          | -0.617** |
| 기회형 창업               |          |          | -0.502** |
| n                    | 225.     | 225.     | 225.     |
| R <sup>2</sup>       | 0.286    | 0.616    | 0.640    |
| p-value              | 0.000    | 0.000    | 0.000    |

†  $p < 0.10$ ; \*  $p < 0.05$ ; \*\*  $p < 0.01$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총고용이 높았고(모형3,  $\beta = 0.114$ ,  $p < 0.01$ ),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은 구에서는 창업으로 이루어진 총고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모형3,  $\beta = -0.142$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난 지역특성과 생존기업의 평균고용의 관계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지역 내의 구조적 산업특성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이후의 총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 $\beta = -0.919$ ,  $p < 0.01$ )하였으며, 생계형 창업( $\beta = -0.617$ ,  $p < 0.01$ )과 기회형 창업( $\beta = -0.502$ ,  $p < 0.01$ )을 불문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기회형 창업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총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effect size)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창업형태와 고용의 관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기업생존율이 총고용과 평균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이 기업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7〉의 모형1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의 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창업을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분리하여 이들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시간변수(t)는 모든 모형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음(-)의 상관관계( $\beta =$

〈표 7〉 창업형태와 기업생존율

| 독립변수                 | 기업생존율(창업 후 3년 기준) |          |                    |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시간(t)                | -0.142**          | -0.190** | -0.191**           |
| ΔGDP                 | 0.098*            | 0.046    | 0.051 <sup>†</sup> |
| 실업률 <sub>(t-2)</sub> | -0.588**          | -0.413** | -0.395**           |
| 구별인구                 | -0.227**          | 0.297**  | 0.236**            |
| 주간인구지수               | 0.369**           | 1.089**  | 1.001**            |
| 구별 용도지역              |                   |          |                    |
| 주거지역                 | -0.201**          | -0.289** | -0.237**           |
| 상업지역                 | -0.035            | 0.052    | 0.056              |
| 공업지역                 | -0.045            | 0.018    | 0.023              |
| 창업                   |                   | -0.854** |                    |
| 생계형 창업               |                   |          | -0.840**           |
| 기회형 창업               |                   |          | 0.070              |
| n                    | 225.              | 225.     | 225.               |
| R <sup>2</sup>       | 0.400             | 0.613    | 0.650              |
| p-value              | 0.000             | 0.000    | 0.000              |

<sup>†</sup>  $p < 0.10$ ; \*  $p < 0.05$ ; \*\*  $p < 0.01$

-0.142, -0.190, -0.191,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최근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반적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여파는 실업률과 기업생존율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즉, 과거(t-2)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기업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 $\beta = -0.588, -0.413, -0.395, p < 0.01$ )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ΔGDP와 기업생존율은 모형1( $\beta = -0.098, p < 0.05$ )과 모형3( $\beta = -0.051, p < 0.10$ )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경제성장은 기업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특정지역의 상주인구가 많을수록 기업생존율이 개선( $\beta = 0.369, 1.089, 1.001, p < 0.01$ )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기회형 창업에 비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상주인구가 많은 것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므로, 확대된 수요가 창업기업의 생존을 돕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모형2와 모형3에서와는 달리 모형1에서는 구별인구가( $\beta = -0.227, p < 0.01$ )가 기업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 역시 구별인구와 창업의 상관관계( $\rho = 0.23, p < 0.01$ )가 구별인구가 기업생존율에 미치는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잠식했기 때문이라고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특정지역 내에서 창업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기업생존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beta = -0.854,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수요와는 반대되는 요인으로 특정 지역 내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업종의 창업기업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창업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면 생계형 창업의 증가는 기업생존율에 강한 음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beta = -0.840, p < 0.01$ ) 기회형 창업의 증가는 창업기업들의 3년 후 생존율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beta = 0.070, p > 0.10$ ). 이는 기회형 창업의 생존율이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생계형 창업과는 달리 기회형 창업의 생존율은 지역수요 및 지역 내 경쟁강도와 같은 지역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 이론(entrepreneurial motiv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창업형태를 생계형과 기회형으로 분리하여 각 형태별로 고용성장 및 기업생존율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창업과 실업, 창업과 고용성장의 관계가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직접 수집한 기초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구성하여, 우리 고유의 창업생태계가 보유한 고용성장성과 지속가능성(생존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창업의 기술통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통제변수들과 예측변수들이 고용창출 및 기업생존율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

을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존에 성공한 기회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평균고용의 증가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기회형 창업이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고성장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고성장기업이란 산업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일컬으며, 고성장기업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Schreyer(2000)는 OECD국가들 내에서 고성장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의 50~60%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Storey(1994)도 미국에서 약 4%에 해당하는 고성장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신규고용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연구와 본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창업을 통한 장기적 고용창출은 창업 자체보다는 창업 이후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의 평균고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창업을 통한 고용성장은 단기적으로 창업기업 수를 늘리는 양적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전망이 밝은 기회형 창업이 꾸준히 생성되고 생존하는 경영환경과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질적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기회형 창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은 역설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현 경제상황과 생계형 창업을 증폭시키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서울시에서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업에 의한 총고용의 변화량도 감소 일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설립된 대다수기업이 생계형 개인기업이라는 사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개인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가 가장 높고, 부동산 및 임대, 숙박 및 음식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계형 개인기업은 대부분 자가 고용의 형태여서, 업력이 쌓여도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경기가 악화되고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 폐업과 실업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

특히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의 생존율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창업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창업비율은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국가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서울연구원, 2014).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정책은 수요의 규모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기회형 창업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지역 수요 변동의 추이 및 동종기업들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별 인구규모에 맞게 생계형 창업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차지구별로 기업환경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실용적인 정책방향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실업률은 생계형 창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에, 기회형 창업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조). 이 결과는 실적이 빈번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불경기일수록,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실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비자발적 창업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Thompson, 2011). 실업률의 증가로 야기되는 생계형 창업은 생존율이 매우 낮아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생계형 창업이 무더기로 이루어지면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Acs, 200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기업을 통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창업인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영업의 부채규모 또한 증가하여, 2010년 90조원 수준이었던 시중은행 대출 잔액의 규모가, 5년 만인 2015년에는 두 배 수준인 180조원으로 상승하였다(한국은행, 2016). 서유럽 국가들처럼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히 구축된 경우에는 실업률과 창업의 상관관계가 낮고, 사회적 안전망이 비효율적인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사회임금<sup>7)</sup> 수준은 OECD 평균인 40.7%보다 매우 낮은 12.9%로서(김소연, 2014),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인 소득보전이 충분치 못한 현실이다. 정부가 실직자의 생계비를 보전하고 재교육과 재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생계형 창업의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실패한 창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다.

넷째, 제조기반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창업기업의 총고용과 평균고용 증가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서비스업과 상업 중심으로 진화해가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억제하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7) 실업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건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려 2차 3차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산업 간의 균형형을 이루는 것이 경제성장에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공업용지가 존재하는 지역은 중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기회형 창업이 타구에 대비하여 월등히 많지는 않았지만, 창업한 기업들의 평균고용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제조업은 인쇄, 금속기계, 봉제 및 의류 등으로, 이들은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여 분업과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형태의 제조업은 고용안정성과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서비스 업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분포하고 있는 제조업은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10억 원 당 18.8명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윤종진 · 우명재, 2016). 그러나 대도시의 제조업은 임대료 상승과 상업시설 및 주거지의 확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대도시의 제조업 클러스터가 협업형 공급사슬 구축, 산업구조 다양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고용창출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고려할 때, 도시형 제조기반을 보전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회형 창업을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해야한다.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은 창업형태와 보유한 사업역량,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집단들이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기회형 창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상권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생계형 창업도 증가하고 이들의 수익성도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구, 강남구, 금천구 등의 창업의 수가 다른 지역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이들의 생존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

역은 주간인구 비율이 높고 기회형 창업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생계형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기회형 창업의 증가는 고용창출로 인하여 지역 수요를 유발하므로 지역에 위치한 생계형 창업의 생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추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창업을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상호배타적인 그룹으로 간주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둘의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Williams, 2008),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동기나 창업형태가 불분명한 기업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이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신생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수를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생계형과 기회형 창업은 기업가의 창업의도에 의거하여 구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개인 창업도 기회형 창업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형 및 생계형 창업의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론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보편성 및 일반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창업의 수와 기업생존율 및 고용성장과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향후에는 기업생존율과 고용성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평균고용 성장 및 기업생존율에 있어서 기회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하나의 이유는 다수의 표본기업이 성과가 저조한 생계형 창업인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기회형 창업도 스타트업과 벤처와 같은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실패율이 높다. 한국 벤처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로 다른 OECD국가들(스웨덴 75%, 영국 59%, 독일 52%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상의, 2017).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을 통하여 혁신형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 후에도 신속한 재기가 가능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 실패율이 높지만 성공 시 기회형 창업이 가진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이들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호흡이 길고 장기적인 보육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광석(2015),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현대경제연구원
- 김보경(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김소연(2014), "복지 가늠자 '사회 임금' OECD 최하위 수준," 한겨레, 2014년 9월 11일자 보도
- 대한상의(2017),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 박수훈·이윤숙·신호정(2011), "서비스 실패 및 고객불만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2(1), 1-20.
- 서정환·신용백(2002), "성공/비성공 벤처기업 창업자 성공요인 추출과 비교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6(1), 57-72.
- 윤종진·우명제(2016), "서울시 제조업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1(2), 73-91.
- 서울연구원(2014), **서울인포그래픽스**
- 조태현(2004),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증대를 통한 소상공업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생산성논집**, 18(3), 189-111.
- 주현·김숙경·김종호(2013),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 과제**, 산업연구원
- 최창호·안동환(2010), "산업별 창업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5(2), 193-205.
- 한국은행(2016), **금융안정보고서**
- Acs, Z. J.(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s*, 1(1), 97-107.
- Acs, Z. J., and C. Armington(2004), "The Impact of Geographic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on Service Firm Formation R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6(2), 244-278.
- Acs, Z. J., and C. Armington(2006), *Entrepreneurship, Geography,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Acs, Z. J., C. Armington, and T. Zhang(2007), "The Determinants of New Firm Survival across Regional Economies: The Role of Human Capital Stock and Knowledge Spillover," *Regional Science*, 86(3), 367-391.
- Anyadike-Danes, M., C. M. Bjuggren, S. Gottschalk, W. Hölzl, D. Johansson, M. Maliranta, and A. Myrann(2015), "An International Cohort Comparison of Size Effects on Job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44(4), 821-844.
- Astebro, T. B., and J. Tåg(2017), "Gross, Net, and New Job Creation by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8, 64-70.
- Audretsch, D. B., and T. Mahmood(1995), "New

- Firm Survival: New Results Using a Hazard Func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1), 97-103.
- Beck, N., and J. N. Katz(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634-647.
- Box, M.(2008), "The Death of Firms: Explor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 and Birth Cohort on Firm Survival in Sweden," *Small Business Economics*, 31(4), 379-393.
- Bridge, S., and K. O'Neill(2012), *Understanding Enterprise: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Palgrave Macmillan.
- Brüderl, J., P. Preisendörfer, and R. Ziegler(1992), "Survival Chances of Newly Founded Business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2), 227-242.
- Carree, M. A.(2002), "Does Unemployment Affect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A Regional Analysis for US States," *Regional Studies*, 36(4), 389-398.
- Davis, S. J., J. Haltiwanger, R. S. Jarmin, C. J. Krizan, J. Miranda, A. Nucci, and K. Sandusky(2007), "Measuring the Dynamics of Young and Small Businesses: Integrating the Employer and Nonemployer Univers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elmar, F., and P. Davidsson(2000), "Where Do They Come From?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Nascent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2(1), 1-23.
- Evans, D. S., and L. S. Leighton(1990), "Small Business Formation by Unemployed and Employed Workers," *Small Business Economics*, 2(4), 319-330
- Fairlie, R. W., and J. Miranda(2017), "Taking the Leap: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 Hiring their First Employe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26(1), 3-34.
- Haltiwanger, J., R. S. Jarmin, and J. Miranda(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347-361.
- Knaup, A. E.(2005), "Survival and Longevity in the Business Employment Dynamics Data," *Monthly Labor Review*, No. 5, pp.50.
- Parker, S. C.(2009), *The Economics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Pena, I.(2002). "Intellectual Capital and Business Start-up Success," *Journal of intellectual capital*, 3(2),180-198.
- Reynolds, P., D. J. Storey, and P. Westhead(1994),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the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ates," *Regional Studies*, 28(4), 443-456.
- Schoar, A.(2010), "The Divide between Subsistence and 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0(1), 57-81.
- Schreyer, P.(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OECD STI Working Paper*
- Shane, S.(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141-149.
- Storey, D. J.(1994), "The Role of Legal Status in Influencing Bank Financing and New Firm Growth," *Applied Economics*, 26(2), 129-136.
- Thompson, P.(2011), "Necessity and Opportunity Entrepreneurs through the Business Cycle," *Economics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 Wagner, J.(1997), "Firm Size and Job Quality: a Survey of the Evidence from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9(5), 411-425.
- Wennberg, K., and D. R. DeTienne(2014), "What Do We Really Mean when We Talk about 'Exit'?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Exi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2(1), 4-16.
- Wicker A. W., and J. C. King(1989), "Employment, Ownership and Survival in Micro-business: a Study of New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1(2), 137-152.
- Williams, C. C.(2008), "Beyond Necessity-driven Versus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 a Study of Informal Entrepreneurs in England, Russia and Ukrain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9(3), 157-165.
- Wong, P. K., Y. P. Ho, and E. Autio(200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GEM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35-350.

# An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Job Creation by New Business Establishments in Seoul

Yoonsuk Lee\* · Sangjoon Lee\*\* · Hojung Shi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ramework of the mechanism by which entrepreneurial activities are transformed into job creation. We divide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to subsistence entrepreneurship and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and examine the empirical associ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irm survival rate, and employment growth. A set of panel data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the district-level data coll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period between 1998 and 2013.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growth in the number of entrepreneurial firms is indeed related to employment growth, but in a limited manner. Specifically, firms established upon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if survived, tend to generate additional jobs whereas subsistence entrepreneurship has not been able to create jobs due to its low survival rat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ster opportunistic entrepreneurship proactively and manage survival rates of subsistence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secure jobs and sustain growth in employment. In addition, the employment growth rates in the districts with a high level of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are significantly higher, indicating that urban manufacturing clusters should be protected to secure employment and be paid special attention as these clusters continue to disappear due to the rising property rental expenses.

Key words: Entrepreneurship, Subsistence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Firm Survival Rate, Employment Growth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yang-Mirae University, First Author

\*\* Ph.D. Candidate, Dept. of Logistics, Service & Operations Managemen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Co-Author

\*\*\* Professor, Dept. of Logistics, Service & Operations Managemen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Corresponding Author

- 저자 이윤숙은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LSOM전공 석박통합과정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관심사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신제품개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등의 분야이다.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다변량분석 및 패널분석을 주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기술경영분야의 혁신기업 사례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저자 이상준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LSOM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서 태양전지 개발과 미국담당 수출업무를 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SCM, 서비스 운영관리, 수요예측 등이고 이차데이터를 기반으로 Econometrics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 저자 신호정은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금성사)에서 수출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오하이오 주립대(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MBA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서 『경영학연구분석센터』 설립을 주관하여, 세계 경영대학들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제조업과 국제교역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고객을 지향하는 시장중심의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에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